

SKT-코액터스,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국제상 수상

<청각장애인 기사 운전 택시>

“‘고요한 M’, ICT기술로 장애인 일자리 확장 보여줬다”

**- 청각장애인 위한 ‘깜박이 알림’ 등 ICT기술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111명 기사 배출, 23만건 운행**

**- 장애인 일자리 확장 위한 창의적 해결 및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 “AI 등 활용해 사회적 약자 돕는 배리어프리 프로젝트 추진, ESG 경영 선도”**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도 출입기자분들께 별도의 자료를 배포합니다** |

**[2022. 3. 22]**

ICT 기술을 이용해 청각장애인 기사들의 택시 운전을 돕는 ‘고요한 M’ 서비스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 사례로 인정받으며, 국제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과 소셜벤처기업 코액터스가공동 프로젝트인 청각장애인 택시 ‘고요한 M’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이 수여하는 ‘제 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서 ‘안전∙안심상’(특별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통해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한 단체에게 수여하는 국제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며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지난 1회와 2회에는 각각 남아공의 ‘두눈 학습 혁신 프로젝트(2019)’\*와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카운트리스 시티즈(2020)’\*가 대상을 수상했다.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회는 ‘고용한 M’ 서비스가 ICT 기술을 이용해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장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혁신적인 사례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고요한M’은 현재까지 11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를 배출했으며, 누적 운행 건수는 23만 건을 돌파했다.

SKT는 청각 장애인 기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차량 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요한M’ 운영사인 ‘코액터스’와 2018년부터 협업해 왔다.

SKT는 특히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ICT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청각장애인들이 운전 중에도 택시 호출 신호를 눈으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UT앱’(舊 ‘T맵택시’)에 ‘깜빡이 알림 기능’을 추가했고, 호출 시 승객과 운전자가 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했다.

또 SKT는 청각장애인 운전자에게 ‘T케어 스마트워치’를 제공해, 위급 상황에서 쉽게 112에 연결하거나 위치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SKT는 또 AI등 자사가 보유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극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SKT는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2022(GSMA Global Mobile Awards)’에서 ‘접근성·포용성 위한 최고의 모바일 사용 사례‘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 GLOMO 2022 : 시각장애인을 돕는 시각보조서비스인 ‘설리번플러스 x NUGU’

 GLOMO 2021 : 5G MEC 기반의 증강현실(AR) 서비스 ‘창덕아리랑’

 GLOMO 2020 : 청각장애 택시기사 보조앱 ‘고요한 택시’

여지영 SKT ESG Alliance담당은 ”AI 등 SKT가 보유한 ICT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계속 선보여 ESG경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액터스 송민표 대표는 “청각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앞으로도 고요한M이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
| --- |
| **※ 사진설명**SK텔레콤과 소셜벤처기업 코액터스는 공동 프로젝트인 청각장애인 택시 ‘고요한 M’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이 수여하는 ‘제 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서 ‘안전∙안심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1>** 온라인 시상식에 참가한 여지영 SKT ESG Alliance담당(왼쪽 위)은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왼쪽 아래) |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전략PR팀 박지웅 매니저 (02-6100-3832) <끝>**

**※ <첨부> 서울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역대 대상**

○ **제1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대상작(2019년**): 남아공의 ‘두눈 학습 혁신 프로젝트’다. 20여 년간 인구가 다섯 배 이상 팽창했지만 제반 시설이 부족해 낙후된 환경에 놓여있던 두눈 지역에 2013년부터 컨테이너로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지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에게 배움의 환경을 공유해 미래 희망을 가져다준 디자인 프로젝트다.

○ **제2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대상작(2020년):** ‘카운트리스 시티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마을 파바라 중심부에 있는 낡고 버려진 집을 현대 미술 전시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도시 전체를 재창조했다. 10년 전만해도 관광객이 전무했던 도시를 디자인 예술 재생 사업을 통해 10만 명이 찾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다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 디자인 프로젝트다.